

Beyond the Global Chasm!

명실상부한 벤처산업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벤처코리아2003'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렸다.

'벽을 넘어 세계로' (Beyond the Global Chasm)를 기치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및 국내 벤처기업인 2000여명이 참석,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찼다.

6일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 등 국내외 주요 벤처 유관단체, 벤처기업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코리아의 하이 라이트인 개회식과 벤처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틀러 벤처기업 홍보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벤처홍보네트워크 포럼', 최고 재무담당자 모임인 'CFO 네트워크' 등이 개최됐다. 특히, '아이러브 벤처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벤처기업인의 수기와 사진 등이 전시되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벤처인의 모습을 담은 진솔한 수기와 사진전은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을 통해 모은 기금 5000만원을 저소득층 아동 및 가출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 벤처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둘째 날인 7일에는 국내외 벤처인들의 모임인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총회가 개최됐다.

또한,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출상담회, 해외 투자자 초청 기업설명회,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이 열렸다. 국내외 벤처인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비즈니스 상담으로 바쁜 모습들이었다.

'벤처코리아2003'은 벤처 비즈니스의 장터이자 벤처산업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Beyond the Global Chasm



1. 2003 영예의 벤처기업대상 수상자들
2. 개회사를 하는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
3. 벤처파이팅을 외치는 국내외 벤처기업인들
4. 수출상담회에서 제품설명을 듣고있는 바이어
5. CEO포럼에서 강연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6. 벤처기업제품 전시에서 제품설명을 듣고있는 관람객들
7. 축하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